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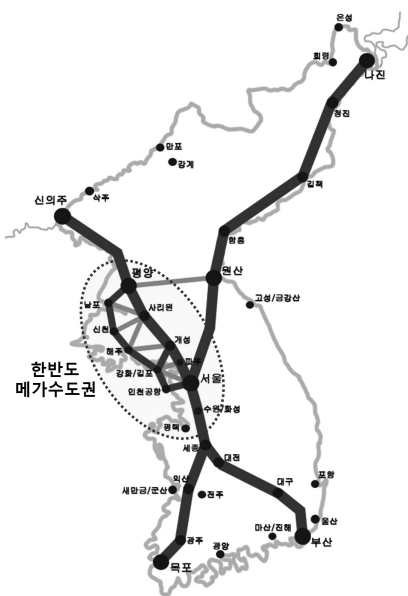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상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

향후 한국 건축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들자면 '남북통일'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통신·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도시 기반 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동 붐을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의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비추어보면 통일은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치적 통합이 미진한 단계에서도 경제적 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바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필자 | 민경태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경제·IT 전공

1992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및 도시설계'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건설에서 싱가포르 현장 등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건축 디자인과 IT를 접목한 벤처기업 데코드림(주)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다. 2003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MBA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소싱, 기술벤처 투자,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해왔으며, 2013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I 한반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방향

New Strategy for the Economic Growth of Korean Peninsula

새로운 성장 전략과 한국 건축계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 각국은 저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몇몇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요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때이다. 특히 그 동안 간과했던 남북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다시 돌아보고,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북한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한 관계는 정치·이념·군사·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에 비해 경제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경제적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문제의 영긴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협력이 주변 국가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남북한 통일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군사적 긴장지대였던 북한을 평화지역으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한이 상생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의선축과 인근 서해안 거점도시들을 서로 연계하는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지역을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남북한 공동의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으로 만들게 되면, 초고속 교통·통신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급속하게 북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상대적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생적 경제활동의 무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막대한 인프라 시설을 위해서는 한국 건축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요 도시들의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야만 하기 때문에 도시설계, 건축, 토목, 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 전반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비록 현재는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한국의 관련 업계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도 대거 진출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건축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적절한 전략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남북한의 유기적 통합 과정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투자나 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을 단기적으로 호전시키려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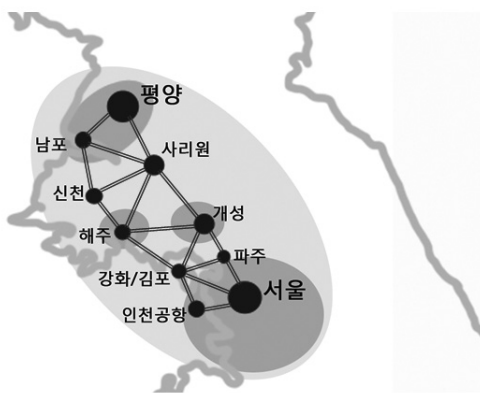


그림 1.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개념도¹⁾

1)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97.

북한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교류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이 남북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고, 산업의 융합적 구조 형성을 통해서 각자의 장점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적극 활용하되, 열세인 산업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업구조를 재편하고 긴밀한 산업협력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마치 동일한 국가영역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듯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형성을 위해 분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은 마치 생명체에서 유기적인 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생명체에서 세포융합(cell fusion) 현상이 나타날 때와 같이, 분리되어 있던 남북한이 다시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생명공학적 세포융합 과정이 두 세포의 우성 형질은 모두 포함하되 열성형질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이, 남북한의 비효율적인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상호보완적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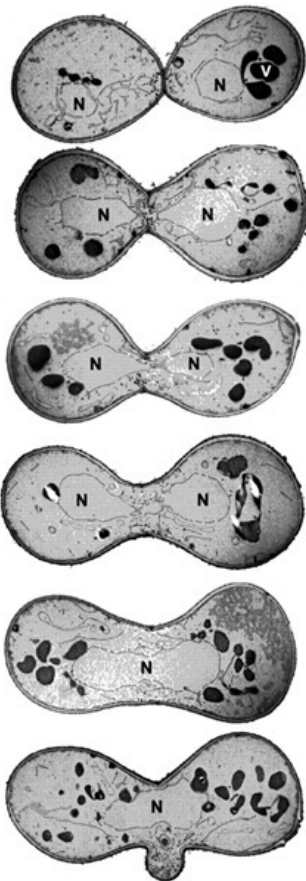


그림 2. 세포융합 과정²⁾

<그림 2>에서 보이는 세포융합은 두 개의 세포를 구분하고 있었던 세포막이 사라지고, 점차 핵과 세포 구조물이 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포융합의 초기 단계에서는 접합관이 형성되면서 세포벽을 분해하여 세포질이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는데,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물류·에너지·정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

다. 또한 세포질 융합 과정은 각 기능이 서로 연계되는 분업구조 재편 과정에, 세포핵 융합 과정은 원활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제도적 통합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기적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의 낙후된 경제 상황은 남한과의 협력에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독일 경제 통합에서 동서독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을 구성하는 기술 혁신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남북한의 산업 분업구조를 새롭게 재편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북한은 기술 혁신도가 낮은 노동·자원 기반의 산업을 담당하고, 남한은 기술 혁신도가 높은 설비·장치 중심의 산업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낮은 설비·장치 기반의 제조업 분야를 포기하는 대신에, 신경제 체제하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지식·네트워크 기반의 신성장산업 분야를 남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볼 수 있다.

<표 1> 세포 융합과 남북한 통합의 비교³⁾

단 계	세포 융합	남북한 통합
1단계	접합관 형성	정보·물류·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세포벽 분해	
2단계	세포질 융합	분업구조 재편,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활성화
3단계	세포핵 융합	경제협력 성숙, 제도적 통합으로 발전

수도권의 초국경적 협력 가능성

<표 1>에서 제시한 남북한 통합의 단계는 생물세포의 융합과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대입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한반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력대상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과 같이 소규모 경제 특구를 운용하는 것만으로는 북한 경제 성장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견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평양 경제권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지역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약 200km 거리에 불과하지만, 남북한 주요 산업의 중심이자 인구가

2) 효모접합(酵母接合, yeast mating) 과정, Rose & Gammie Lab, Molecular Biology, Princeton University
3)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8.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은 한반도 성장 전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는 시도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향이지만, 이미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초국경적 경제 협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유보한 상태일지라도, 산업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우선 경제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자.

실제로 한 국가의 정치적 영역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적 협력이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자본, 노동력, 상품, 원자재, 여행객 등 초국경적 흐름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과거의 초국경적 경제활동이 국가 체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던 반면, 1980년대 이후 국가 경제가 해외기업들에게 개방되고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고 국경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도시들과 지역을 아우르고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시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초국경적 M&A가 진행되고, 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초국경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경적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심지어 인접한 도시간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국가(Region States)'의 개념을 민족국가의 개념보다 의미 있는 영토적 분리선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오마에 겐이치는 'The End of the Nation State'(1995)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도시들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민족국가의 쇠퇴 및 새로운 지역국가의 부상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례로든 홍콩 및 주변지역의 관계에서는 홍콩 경제의 발전이 선전(深圳)을 넘어 광둥성(廣東省)의 다른 여러 지역들까지 폭넓게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초국경적 지역간 협력이 앞으로 세계 도처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록 민족국가의 개념이 실제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적 협력이 정치적 영역을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표 2〉 홍콩-광둥성 경제협력 모델의 한반도 적용⁴⁾

단 계	중국의 사례	한반도 적용
① 초기협력	홍콩-선전 경제특구	서울-개성공단 경제특구 (개성공단 모델)
② 확대발전	홍콩-광둥성 전체지역	서울·인천-개성·해주-평양·남포 (서울-평양 경제권 모델)

초국경적 경제협력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주로 세계적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대도시들은 네트워크로 서로 연계되어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도시들보다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동아일보와 모니터그룹은 글로벌 광역경제권을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 MCR)'으로 지칭하고, 세계적인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도시권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성장의 기반으로서, 이제는 한 국가의 역량이 대도시권의 역량에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초국경적 경제협력은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 단위 경쟁으로부터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단위로 글로벌 경쟁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이 세계적인 광역경제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장시키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도시기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확장의 범위를 이제는 남한 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공간적 확장을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남포 및 인근의 서해안 주요 도시들을 포함하면, 한반도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주요 산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의 도시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면 한반도의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점점 진보되고 있는 교통·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서울-평양간의 공간적·물리적 제약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네트워크 경제의 적용 가능성

서울-평양 경제권의 도시들을 네트워크 인프라로 긴밀하게 연결하면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인 통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네트워크 경제'라는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서, 기술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경제적 패러다임에 속하는 영역이다.

4)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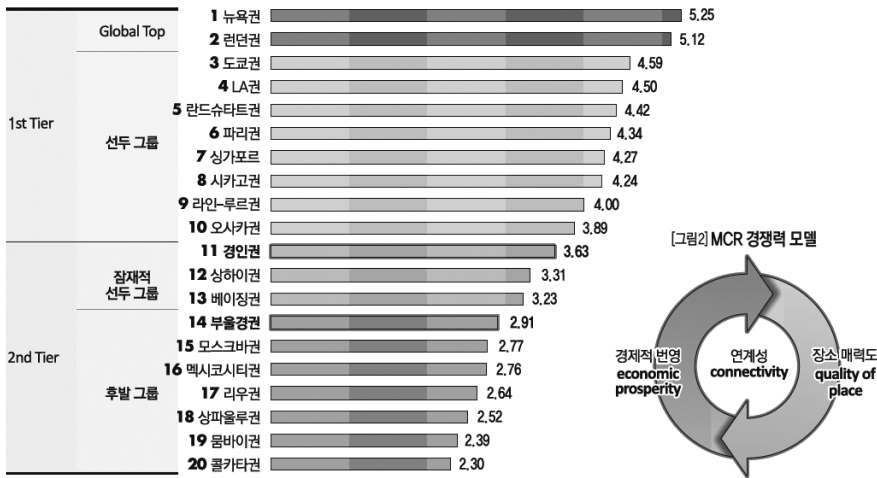


그림 3. MCR 경쟁력 순위 ⁵⁾

네트워크 경제 이론의 도입은 남북한의 경제 협력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서울-평양간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두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남한의 발전된 산업 및 인프라 역량을 단기간에 북한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 모색이 가능하게 된다.

제러미 리프킨은 'The Age of Access'(2000)에서 시장은 네트워크에 자리를 내주며 소유는 접속으로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네트워크 경제 체제에서는 물질 자본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며, 부의 창출도 물질 자본에서 나오지 않고 개념, 아이디어, 이미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기존 경제체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제도와 법, 그리고 인간형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마뉴엘 카스텔은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2000)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New Economy)의 특성을 정보화(Informationalism), 지구화(Globalization), 네트워크화(Networking)로 정리하였다. 정보화는 신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지식기반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가공·적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지구화는 생산·소비·순환의 핵심적인 활동과 그 구성요소가 경제행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적 규모로 조직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네트워크화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미래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여 관리·경영하는 것이 점점 심화되고, 이를 통해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깊은 경제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경

제적 환경은 새로운 경제 체제의 도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기존의 경제 체제가 선형적인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다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신경제 체제는 기하급수적 기술 발전을 통해 보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적용하게 되면, 산업 발전을 이미 달성한 국가들의 경쟁력 우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externalities)'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남북한 산업협력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개별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제특구 차원의 협력을 뛰어넘는 경제

적 이익이 한반도 차원의 남북한 전체 경제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 분업 구조를 재편하여 이루게 될 미래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경제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육성되는 산업은 자본과 기술, 대규모의 생산설비 등 양적 성장시대의 경쟁력을 결정지었던 물질적 토대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다. 신경제 체제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존의 공간적 시장 개념이 필요 없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심산업도 생산기술 위주의 제조업에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이루는 생산요소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물질적 기반을 소유하는 것에서 접속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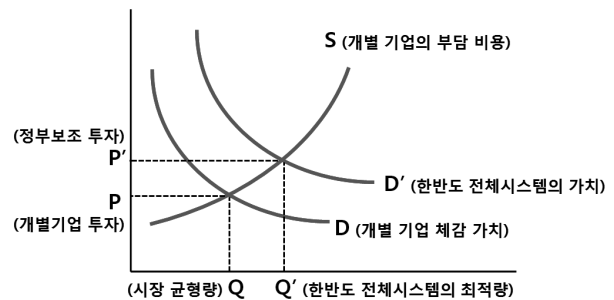


그림 4. 네트워크 외부성과 한반도 전체시스템의 수익성 ⁶⁾

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네트워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질적 생산요소를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남한이 보유한 산업 역량과 인프라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갖출 수 있다는

5) 박영훈, "Mega City Region'은 국가 도약의 플랫폼," 『Dong-A Business Review』, Vol. 37 (2009년 7월), p. 59.
6)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67.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경제의 등장은 남북한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함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한반도의 도약적 성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환경 조건

본 구상은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한 것으로서, 정치적 요인은 모두 해결된 상태를 전제로 한반도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초국경적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배경이 국가 정치의 중심인 수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정치 체제의 차이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동일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에 앞서 정치적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점진적인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정치적 긴장의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선행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는 중국의 광둥성과 홍콩 간의 성공적인 경제협력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적 체제가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가 아니더라도, 상호 적대적인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수준으로 변화하게 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2개의 국가로 유지되지만 경제적으로 연계가 심화된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의 형성을 초기 단계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되, 물류의 이동은 자유로운 상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경제권내의 교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남북한 공동의 행정적 운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비록 남북한이 각자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서울-평양 경제권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와도 같은 경제 단위로써 긴밀히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북 간의 인력이동 제한 및 임금수준의 격차 유지는 일정한 단계까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력의 이동은 방향성을 부여하여 일정 수준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기간 남북한 주민의 이주권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동독의 사례로부터 교훈

을 얻을 수 있듯이, 남한의 일방적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남한과 북한의 소득 및 복지 수준의 격차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남북한의 협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중요하며, 특히 남북한의 평화 유지가 주변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긍정적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협력이 점점 심화되고 정치적 안정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과 홍콩의 관계와 같은 '일국양제'를 통해서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정치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 기능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초국경적 광역경제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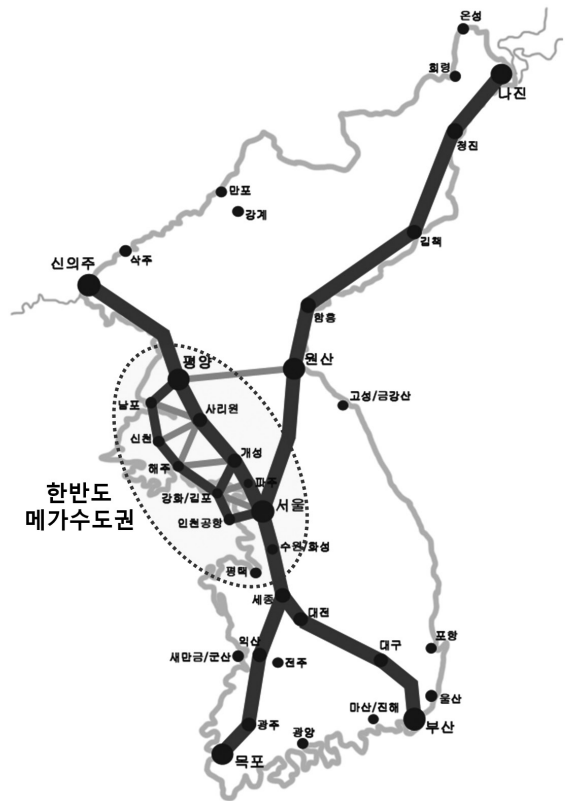


그림 5. 한반도 메가수도권의 지리경제학적 중요성⁷⁾

서 원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실현되는 미래에는 서울-평양 경제권을 '한반도 메가수도권'으로 발전시켜 수도의 기능을 역내 도시들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의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추적 거점이자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

7) 민경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p. 96.